

들었네.

“저건 사냥꾼이 부리는 개야.”

하고 폴이 말했어.

“저녁이 되면 숨어 있다가 사슴들을 죽이러 오는 거지.”

조금 지나자 개 짖는 소리는 더 심해졌네.

“내 생각엔,”

비르지니가 말했어.

“피텔 같아. 우리 집 개야. 맞아, 나 피텔이 짖는 소리는
알아듣거든. 그럼 우리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닐까? 우리
집에 있는 산 밑까지?”

정말로 잠시 후 피텔이 두 아이의 발치까지 와서 쿵쿵
대며 울부짖다가, 짹짹거리고 신음하고 또 몸을 비비면서
두 사람을 못살게 굴었네. 폴과 비르지니는 깜짝 놀라 정
신도 못 차리고 있었는데, 얼핏 둘을 향해 달려오는 도맹
그의 모습이 보였지. 이 마음씨 고운 흑인은 도착하면서부
터 기쁨에 겨워 울고 있었고, 두 아이 또한 그린 그에게 말
한 마디 꺼내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네. 도맹그는 평정심을
되찾고 나서야 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.

“어휴, 우리 젊은 마님들, 두 분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
정하고 계신지 아십니까! 미사 모시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
두 분을 어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어머니들께서 어찌
나 놀라셨는지요! 마리는 집 한쪽 구석에서 일하고 있었어
서, 두 분이 어디로 가셨다는 이렇다 할 말도 해주지 못했